

무용예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탐미성 연구

요약문

박순자 숙명여대 명예교수
김수진 명지대 외래교수

본 연구는 연구자가 대학 학부, 석사과정, 무용단원, 교수, 선교무용, 선교무용단 경영 등의 경험에서 고민했었던 무용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탐미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용예술에서는 남성의 활동 비율보다는 여성의 활동 비율이 더 높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기초)단체에서 여성단원의 비율은 71.5%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용 장르에서 여성 단원 비율이 7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고 하였다. 반면, 국가왕조시대(이조시대 전·후)에는 의외로 남성무용수들이 연회에 참여하였던 기록 및 현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무용예술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의한 예술의 대표적 산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여성무용가들이 지니고 있는 미(美)적, 즉 아름다움 또는 예쁨 등의 상징적 형용어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자가 오랜 시간 무용의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무용 및 무용예술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적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인식과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왜곡된 탐미성에 의한 탐미적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체로 무용예술을 하는 무용가 또는 무용수들에 대한 인식이 ‘아름답다’, ‘예쁘다’, ‘날씬하고 키가 크다’ 등 외면적 요소에 대한 초기 인식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무용예술이 신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외면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 그 이상으로 ‘탐미적’ 인식, 성향, 상징성이 일반화되어있기에 무용예술에서 온전한 예술화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미성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무용이라고 하면 여성을 상기한다. 물론 무용예술의 주재료는 인간의 신체이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던 것이 그간의 현상이기에 더욱이 무용을 하는 여성에 대한 탐미성의 성향이 일반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아뻬”라는 단어가 총 30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 6회만이 남성형으로 남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하였고, 그 외의 기록은 여성 형태인 “아뻬”를 사용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하였다. 구약에서 표현된 아름다운 남성은 단 4명으로 요셉과 다윗, 압살롬 그리고 아가서의 연인이 있으며 숫자적 통계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성 뿐 만 아니라 남성에도 해당되는 기준임을 밝히고 있으나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은애, 2010). 인간의 외관에 대한 여러 표현 중 또 다른 하나는 “토브”이다. ‘선한, 좋은’이라는 내면적

뜻을 가지는 ‘토브’는 외형의 모습과 연관하였을때는 ‘아름다운, 멋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외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내면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술무용에는 예술미라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장르의 무용은 각기 그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미를 표현한다. 무용미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한다. 그로인해 외면적인 형식요소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외면적인 형식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바야시 신지, 2000). 외면적 형식 요소는 표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내면적 요소의 지지없이 형성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외형적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면적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는 외면적 형식요소는 완전한 미를 형성할 수 없다.

창세기 1장 26~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무용의 주체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에 대한 곱해가 예술 자체를 악화시켰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예술이 고유하고 무한히 복잡하며 깊은 종교적 내용을 상실했다는 것

두 번째,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 염두하여 형식미를 잃고 조작해 낸 듯 불명료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톨스토이, 1998). 이렇듯 여타의 예술과 동일하게 무용예술의 목적도 소통이자 미적추구에 있다고 한다면 무용예술에 있어서의 탐미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미학자들은 미(美)에 대하여 예술의 근본이자 쾌락을 얻는 도구라고 하였으며, 그 쾌락이 예술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톨스토이, 1998). 반면, 톨스토이는 예술의 목적으로 미나 쾌락을 인정하는 것은 예술을 정의함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불가능하게도 만들 수도 있다고 하였다(김미란, 2013).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인식은 ‘미가 거기에 존재하므로 의식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안이한 사고방식에 머물고 있다(고바야시 신지, 2000). 아름다움이 무엇이라는 질문 자체가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자각이나 규명없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은 종교적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종교적 자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사상의 본질이며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인의 동포적 생활, 곧 인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에 의하여 용기와 능력을 부여하거나 세속적인 기쁨과 슬픔을 서로 경험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결합시키거나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자각을 의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

지고 이해되는 진정한 예술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좋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이선미, 2011). 즉, 예술은 영적 차원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줄 능력이 있는 선물이자 이를 성경이 승인해주고 있다는 진 에드워드 비이스의 주장과 같이(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통해 어렵게 국가를 건립하였고, 발전 도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예술 특히 무용예술은 외형적으로의 발전을 추구해왔다. 따라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정숙하고, 현명함으로 예술의 탐미성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희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용예술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